

반려동물 및 수의의료시장 동향 및 전망

문진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수의연구관
moonjs727@korea.kr



고령화와 독신가구 증가에 따른 소외감 심화와 경제성장 등에 의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반려동물수의 증가와 수의 의료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가별 반려동물 시장 및 수의의료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에 2011~2012년 기준으로 7,300만 가구(전체의 62% 비중)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 그 중 40%에서 개를, 그리고 34%가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 (출처; 미국펫용품협회(American Pet Product Association)) . 개와 고양이 이외의 애완동물은 새(600만), 파충류(500만 마리), 말(200만 마리)의 순이다. 애완동물용품의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529억달러(57조원) 수준이다. 그중 사료시장이 200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크며(표 1), 그 외 의약품 관련 제품 시장이 118억 달러 수준이다 용품시장 규모는 최근 10년간 73% 성장했으며, 수의진료와 치료시장 규모는 134억달러 수준이고 동물 외모에 대한 미용관리 시장은 37억달러 규모이다.

또한, 수조원 규모의 동물용 의료가기 전문유통회사가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암수술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동물용 의료가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동물용 의료가기는 수의용 의약품과 함께 FDA의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에서 관리하고 있다. FDA는 수의학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510(k) 제출서나 판매 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검사용 장갑, 멸균카테터, 의약품주입용펌프 등 사람이 사용하거나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인체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물용 의료가기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이러한 장비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고유의 표기를 명확히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표 1〉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애완동물 시장 현황

	사육가구 비율	관련시장 규모	사료시장규모	동물보험시장
미국	62% ('11~'12)	529억달러('12)	200억달러('12)	3억3천만달러('09)
영국	47%('12)	25억19백만파운드('08)	19억15백만파운드('08)	매년 17% 성장
독일	1/3('11)	37억8천만유로('11)	28억유로('10)	-
일본	27%('12)	1조4,033억엔('11)	4,383억엔	매년 18%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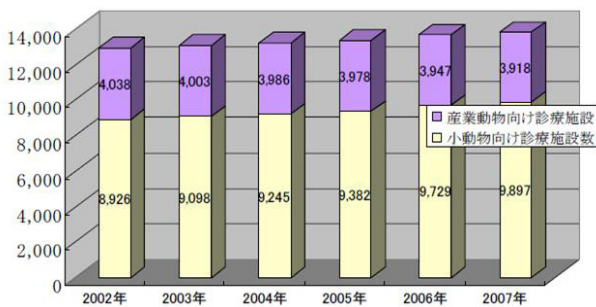
(출처 : 농협경제연구소 2013)

영국은 2012년 1천3백만 가구(전체의 47%)에서 6천 7백만 마리의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 (출처; 영국애완동물사료생산자협회(Pet Food Manufacturers' Association)) . 애완동물 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2,519백만 파운드 수준이며, 애완동물시장보다 사료시장이 더 커서 2008년 1,915백만 파운드 수준을 기록하여 관련시장의 7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물보험시장은 치료비 상승으로 매년 17%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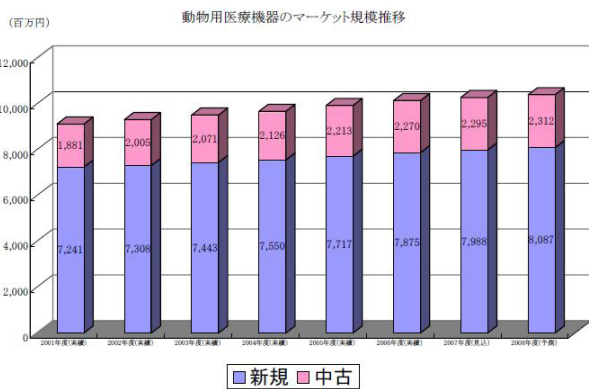
독일은 전세계적으로 고령화로 1인 가구와 독거노인 증가로 반려동물 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셰퍼드와 도베르만 품종의 개의 수출로 연간 2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2011년 애완동물 관련 전체시장 규모는 약 37억 8천만 유로이다. 전체가구의 1/3 가량이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고양이 820만 마리, 개 530만 마리, 조류 350만 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애완동물 중 고양이를 가장 선호하며, 사료시장 규모는 28억유로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2% 성장하였다. 기타 애완동물용품 산업은 9억1600만 유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에 2011년 애완동물 관련시장 규모는 1조 4,033억엔(15조8,991억원) 수준이며, 이 중에서 펫푸드 시장이 4,383억엔(31.2%)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펫용품 시장이 2,484억엔(17.7%) 수준이며, 반려화 및 실내사육에 따른 서비스, 의료보험사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이다(출처: 일본펫푸드협회 '2012년 개·고양이 사육실태조사'). 2007년도를 기준으로 일본에는 13,815개의 동물병원이 있으며(그림 1A), 그중 70%가 소동물병원이다. 하지만 최근 산업동물 진료기관은 해마다 약 30개씩 감소를 보이고 있다. 약사법에서 동물용 의로기기를 포함하는 의로기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업에서 위임하고 있다. 동물용 의로기기 시장규모는 2007년을 기준으로 100억엔을 초과하였으며, CT나 MRI 장비 등과 같은 첨단 의로기기가 진료에 이용됨으로 인하여 신규 및 중고 장비의 도입 비율은 8:2에서 2002년경부터 인체 중고의로기기 시장이 약간 증가하고 있다(그림 1B).

(A) 동물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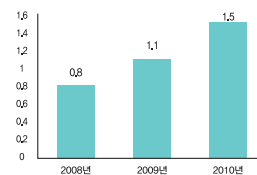
(B) 동물용 의로기기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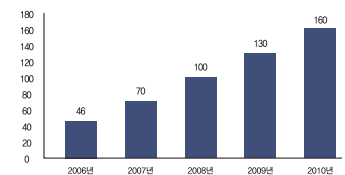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에서 소동물 및 산업동물병원수(A)와 동물용의로기기 시장규모와 신규와 중고장비의 비율(B) 추이(출처: 일본화상의로기기협회)

중국의 경우에도 산아제한정책 및 노령화 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영향, 일부 도시지역에서 일인당 GDP가 3000달러 이상의 경제성장 등에 의하여 2004년부터 반려동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1억 5000만 마리로 추산되며, 2009년에 비해 4000만 마리가 증가하는 등 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3년 현재에는 2억마리에 이르며, 2015년에는 5억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완동물 중개가 60%, 고양이가 10%로서 전체 70%에 이른다. 중국의 애완동물 용품산업은 2007-2008년에 대폭 성장했고, 지난 4년간 매년 20% 이상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리하여 중국의 애완동물 용품 시장규모는 2010년 하반기까지 4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 중 애완동물 식품의 시장 규모는 160억 위안 정도 일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그림 2). 또한, 최근에는 동물의 행복추구권이 포함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애완동물 등록세를 대폭 인하하고, 애완동물 전용 헬스장이 구비된 애완동물 호텔, 애완동물 학교, 애완동물 장례산업 등의 새로운 애완동물 산업이 생겨남에 따라 반려동물 시장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 애완동물 수 (단위: 억 마리)



(B) 사료시장 (단위: 억 위안)



(출처: 中國網, 中國寵物網, 買狗網, 바이두, KITA, 中國海關統計, 코트라 칭다오K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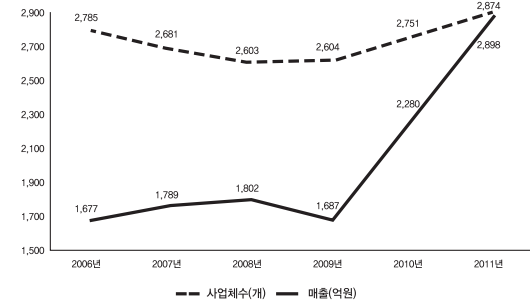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012년 전체가구의 25.3%(약 454만여 가구) 수준이지만 10년 동안 해마다 3~4%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30%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통계청에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009년에 11.0%에서 2026년에는 20.8%가 고령자로 구성된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와 같이 반려동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기준으로 320만 가구(전체 가구의 16%)에서 개 440만수와 고양이 116만수(전체 가구의 3.4%)에 이르렀다(표 2).

〈표 2〉 국내 개, 고양이 사육 마리수 (2012년 기준)

구분	전체가구 (천가구)	사육가구비율 (%)	평균마리수 (천마리)	총마리수 (천마리)
개	20,033	16.0	1.38	4,397
고양이		3.4	1.70	1,159

(자료: 농림수산검역검사정보지 추산자료(2012년 동물보호 국민연식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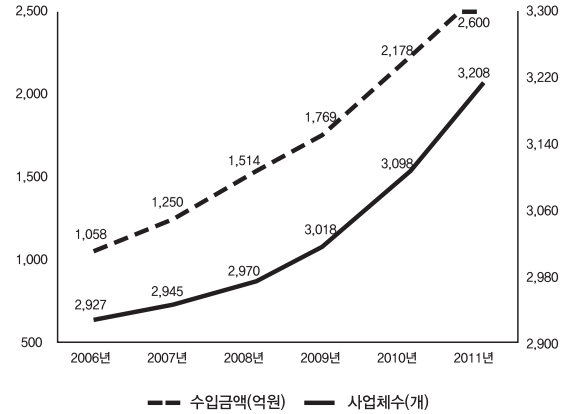
또한, 통계청에서는 2012년 전체 가구의 연평균 반려동물 관련 용품 및 서비스 지출액 44,664원으로 보고하여 2013년 4월 농협경제연구소에서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이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2년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를 연간 약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013년에는 사료 7,000억원, 관련 용품 5,000억원, 의료·장례 7,000억원, 여가활동 등 기타 1,000억 원 정도로서 사료 및 관련용품, 수의진료 부문이 각각 1/3씩 차지하고 2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분야별 시장 규모 및 시장동향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사료 시장 증가율에 있어서는 개는 2009년 대비 14.9% 증가한 반면 고양이 사료는 130.7% 늘어났다. 또한, 개·고양이 사육가구가 연평균 반려동물에 사용하는 물품 구입비용은 〈그림 3〉에서와 같이 2010년에는 1990년 이래 10배 정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3〉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성장 추이 (출처: 농협경제연구소 2013, 통계청 자료 참조)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동물병원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2,927개소에서 2011년에 3,208개로 1.9% 증가하였다(그림 4). 개, 고양이, 말 등의 반려동물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주인의 의료분야에 대한 품질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동물병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첨단 의료용 장비들이 질병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됨으로 인하여 매출액도 2006년 1,058억원에서 2010년 2,178억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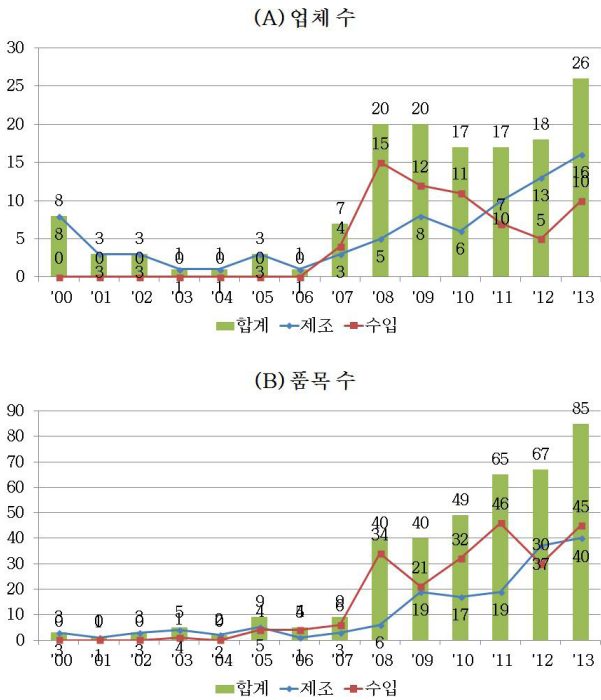
19.8%의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며, 2011년에는 2,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4〉 우리나라 동물병원 및 수입액 증가 추이 (출처: 농협경제연구소 2013, 통계청 자료 참조)

그리하여 사람에서 사용되고 고가의 첨단장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의료기기들이 동물진료에 이용되고 있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등록 업무를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전환한 2007년부터 등록업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이후에는 매년 40건 이상,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매년 60건 이상의 품목신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1년부터는 수입업보다는 제조업 허가가 많아졌다(그림 5). 2013년 9월까지 국내에서는 81개 제조업체와 64개의 수입업체에서 총 383개의 품목이 동물용 의료기기로 신고 되었으며, 이중 18개 업체의 41개 품목이 취소하여 현재 127개 업체에서 342개 품목이 등록된 상태이다.

국내에서 동물용 의료기기로 신고 된 품목 중 다빈도 의료기기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전자인식기, 동물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동물의료용플로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혈구계산기,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골절합용판 등 주로 반려동물용 의료기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의약품주입펌프, 개배란측정기, 유전자증폭장치, 봉합기, 돼지인공수정심부주입기, 개정액주입기, 수정체절단장치, 동물용인공수정체, 전자청진기, 동물용폴리디옥사논 봉합사, 뼈대체재, 동물용치과영상획득장치, 환축감시장치 등 훨씬 많은 다양한 동물용 의료기기들과 프리미엄급의 인체용 의료기기들이 동물용 의료기기로 새로 등록되고 있다.



〈그림 5〉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A) 허가 및 품목(B) 신고 현황 ('13.9.21일 기준)

또한, 최근에는 동물병원의 수의진료서비스에 미용·동물 판매업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카페·놀이시설 등 부가서비스를 함께 갖추는 추세이다. 또한, 국내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시장 추이를 분석해보면 보험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에 수의진료서비스 수준 증가와 반려동물의 고령화로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 반려동물 관련 보험판매실적은 무려 61만건을 기록했다. 이에 반하여 국내 개와 고양이 보험시장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이다.

국내의 경우에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대략 2조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0.07% 규모로서 미국(0.34%)과 일본(0.3%)에 비해 1/4 ~ 1/5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일찍부터 발달한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 〈그림 6〉에서와 같이 국민 1인당 GDP 수준이 1만달러에 도달된 경우에 반려동물 문화가 시작되고, 2만 달러인 경우에 발전단계를 보이며, 3만 달러부터는 동물의 인격화 단계를 나타내었다.



〈그림 6〉 국민소득 수준에 따른 반려동물 문화 발전 단계

국내의 경우에도 선진국에서와 같이 고령화와 독신가구 증가에 따른 소외감 심화와 경제성장 등에 의하여 반려동물수의 증가와 수의 의료시장이 꾸준히 두자리수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시장중 고양이 식품시장 증가율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즉 2012년을 기준으로 사료 시장중 강아지는 2009년 대비 14.9% 증가한 반면 고양이는 130.7%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2020년에는 개, 고양이 사육두수의 증가와 건강관리 및 수의진료서비스 발달로 인한 반려동물 수명연장, 용품 및 서비스의 다양화와 고급화 추세에 따라 2020년에는 반려동물 시장이 지금보다도 5-6배 정도 증가하는 연간 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농협연구소에서는 전망하였다.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는 수의의료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수의 의료분야 발달을 위해서는 외국에서와 같이 의료보험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어져야 할 것이다.▼